

제 1 교시

2022학년도 임권의 하프 모의고사 4회차 문제지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올바르게 반성해야 실력이 늘 것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희파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을 읽을 때는 모름지기 의심이 있어야 하니, 의심이 있어야 학문이 진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주자(朱子)는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라고 하셨고, 또 ‘처음 읽을 때는 의심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생기고 중도에는 구절구절 의심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두루 꿰어 통하게 되니, 이러해야 비로소 학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일대 단안(斷案)\*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저 성현의 말씀은 모두 평이(平易)하면서도 명백하니, 너무 천착\*해서 별다른 뜻을 찾다가 스스로 혼란 속에 얽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退溪先生)은 ‘책을 읽을 때는 별다른 뜻을 깊이 찾을 필요가 없고, 본문에서 현재 있는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적당(的當)하고 쉬우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문에는 진실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후세 사람들은 해석할 때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보고서 가장 근사한 것을 취합니다. 지금 그대가 책을 읽을 때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 그 대목을 가만히 읊조리며 생각해 보면 절로 변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선입견을 가슴 속에 걸어두고서 도리어 선유(先儒)\*의 학설을 가지고서 자기 견해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쓸 것이지 무엇하러 애써 옛 성현의 책을 읽습니까.

- 안정복, 「권철신의 별지에 답함」 -

\* 단안: 어떤 사항에 대한 생각을 딱 잘라 결정함. 또는 그렇게 결정된 생각.  
 \* 천착: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  
 \* 선유: 옛 선비. 또는 선대(先代)의 유학자.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 분량을 조절하며 읽는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의문을 품으며 읽는다.
- ③ 다양한 참고 도서를 찾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며 읽는다.
- 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읽었어. 이 글은 필자가 강을 아홉 번 건넌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로 지각한 외물(外物)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 필자는 강물을 건너는 데 눈과 귀가 방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강을 건널 때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①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
- 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③ 독자는 필자의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읽어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생각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종류를 고려할 때, 견문과 감상을 구분하여 여정에 따른 견문에 주목하여 읽어야 한다.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흥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냄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세속의 나그네는 이르지 않는 곳	俗客不到處
올라보니 뜻도 생각도 절로 맑아	登臨意思清
산 모습도 이 가을엔 더더욱 좋고	山形秋更好
강의 색도 이 밤에 더욱 흰쿠려	江色夜猶明
백조는 높이 날아 사라져 가고	白鳥高飛盡
외로운 돛단배 가벼이 가네	孤帆獨去輕
부끄럼구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自慙蝸角上
반평생 헛이름만 찾고 있구나	半世覓功名

- 김부식, 「감로사차혜원운(甘露寺次惠遠韻)」 -

\* 시우쇠: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상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에는 자신이 가려는 길에 타인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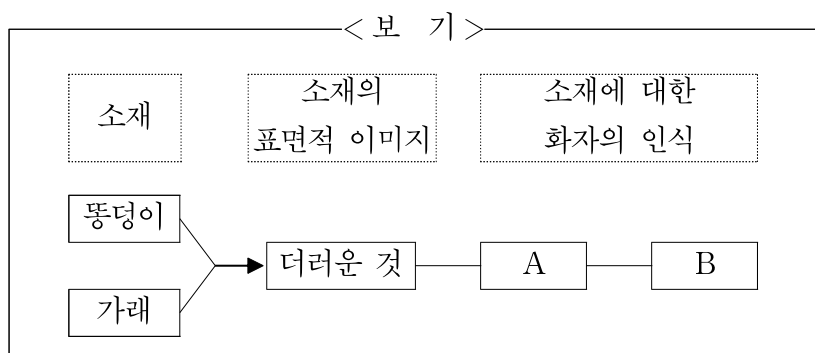
4. (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 중에서 (가)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p>&lt;대장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공간.....㉠</li> <li>○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li> </ul>	<p>&lt;유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갈망...a</li> <li>○ 대상을 현혹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망.....b</li> <li>○ 자기 스스로의 매력에도 취되어 살고 싶은 희망...c</li> </ul>
--	---

- ① ㉠ - a
- ② ㉡ - c
- ③ ㉡ - a
- ④ ㉡ - b
- ⑤ ㉡ - c

5. 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똥덩이]와 [가래]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b>A</b> | <b>B</b>       |
| ① 망각의 대상 | 화자의 발전한 모습     |
| ② 망각의 대상 | 화자의 감추고 싶은 모습  |
| ③ 배출의 대상 | 타인에 대한 화자의 동정  |
| ④ 배출의 대상 |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연민  |
| ⑤ 배출의 대상 |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 |

6.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雪]’의 상징	‘눈[眼]’의 의미
순수, 결백, 정화 시련, 냉혹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li> </ul>

- ①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정화된 시선을 뜻한다.
- ②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순수한 생명력을 뜻한다.
- ③ 결백함과 불순함이 혼재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뜻한다.
- ④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화자의 나약함을 뜻한다.
- ⑤ 닳쳐올 시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뜻한다.

7.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외부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⑤ 색채를 대비하여 계절의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류분석은 자아 상태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교류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류분석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교류의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류분석의 기본 방법은 자아구조분석과 의사교류분석이다.

에릭번(Eric Berne)은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부모자아, 성인자아, 아동자아라고 부른다. ㉠ 자아구조 분석 단계에서는 세 가지 자아 상태의 내용과 기능에 주목한다. 부모자아 상태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게 보살피는 자세를 취하거나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이고, 성인자아 상태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 상태이다. 반면에 아동자아 상태는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다.

㉡ 의사교류분석 단계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자아 상태의 상호 교류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연습을 한다. 발신 내용이 보호적이거나 비판적일 때는 부모자아,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판단하거나 상대에게 냉정히 전달할 때는 성인자아, 감정적·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 할 때는 아동자아 상태에서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발화된 내용은, 상대에게 지지를 구하거나 원조를 얻으려는 경우는 부모자아, 상대에게 사실이나 정보를 구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또는 이성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성인자아,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또는 상대를 약한 자로 대하는 경우는 아동자아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반응 방법을 관찰하고 점차 자신의 비생산적인 교류 방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보완적 교류, 교차적 교류, 저의적 교류 중 하나이다.

보완적 교류는 당신의 어떤 자아 상태가 상대방의 어떤 자아 상태에 보낸 자극에 따라 원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즉, 당신의 세 가지 자아 상태와 상대방의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행선을 이루는 교류다. 이러한 교류는 인정이나 어루만짐이 서로에게 보완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된다. ㉢ 교차적 교류는 상대방이 원하는 욕구가 무시되거나 잘못 이해되어 나타나는 반응의 교류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반응을 얻었을 때 당신은 당황할 것이다. 대화는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면 대화가 중단된다. 저의적 교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교류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의사소통의 이면에 심리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교류로, 대화하는 사람이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자아 상태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교류, 교차적 교류와 ㉣ 다르다.

교류분석은 역기능적 대인 관계의 양상이 왜 생겼고 반복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고자 한

다. 이러한 문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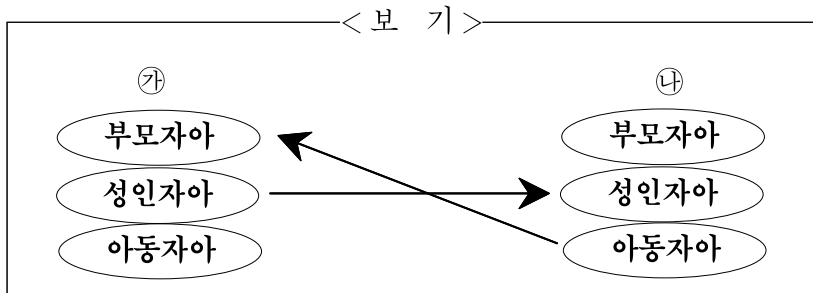
8. 윗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 가지 자아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②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 ③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역기능적 대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다.
- ② ㉠은 개인을, ㉡는 대인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
- ③ ㉠은 적절한 자극을, ㉡는 적절한 반응을 분석한다.
- ④ ㉠은 언어적 메시지를, ㉡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한다.
- ⑤ ㉠은 의사교류의 과정을, ㉡는 의사교류의 결과를 분석한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을 <보기>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와 ㉢의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이 문제는 짜증나서 못 풀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 그래. 내가 해줄게. 맡겨 두라고!
- ② ㉡: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왜먹지 않았어. 너도 그래.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 ③ ㉡: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서 되겠니? 그리고도 고등학생이야?  
㉢: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만 봐주세요.
- ④ ㉡: 그건 품질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은데, 너의 판단은 어떠니?  
㉢: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비싼 옷 입고 싶단 말이야.
- ⑤ ㉡: 아침을 못 먹어 배가 고프네요. 잠깐 나가서 뭐 먹고 오면 안 될까요?  
㉢: 아직 일과 시간 중이야. 점심시간에 가자.

11. ㉠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문을 찾아 유의어를 적은 것이다.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예문	유의어
①	지방마다 <u>다른</u> 생활과 풍습이 있다.	상이하다
②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u>달라</u> 끝이 없다.	분분하다
③	나의 기대와 <u>달리</u> 여행 내내 비가 왔다.	어긋나다
④	그에게는 아주 <u>다른</u> 그 무엇인가가 있다.	특별하다
⑤	불이 부어 입술이 <u>다른</u> 곳에 붙은 것 같다.	엉뚱하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성궁을 찾은 선비 유영은 꿈속에서,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 대군의 궁녀인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진다. 김 진사는 노비인 '특'의 도움을 받아 운영과 달아날 계획을 세우나 특의 배신으로 안평 대군에게 들리게 되고, 운영은 자결을 한다. 김 진사는 특을 불러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며 청량사에서 운영을 위한 불공을 드릴 준비를 하라고 분부하나 특은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

때는 마침 왜나무 꽃이 노랗게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볼 생각은 없었으나 공부를 핑계 삼아 청량사에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묵으며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자세히 듣게 되었지요. 분을 이기지 못했으나 특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목욕재계한 다음 부처님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린 뒤 향을 살라 합장하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운영이 죽을 당시 했던 약속이 너무도 서글퍼 차마 저버릴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특이라는 중놈으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게 하여 명복을 빌려 했었습니다. 그랬건만 지금 이 중놈이 부처님께 빌던 말을 들으니 쾌락이 극심하여 운영의 마지막 소원마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감히 다시 비나이다. 부처님, 운영을 다시 살어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 운영을 저의 배필로 맺어 주옵소서. 부처님, 운영과 제가 다음 생에서는 이 같은 원통함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부처님, 특이란 중놈의 목숨을 끊고 쇠로 만든 칼을 쇠뿔 지옥에 가두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운영은 12층 금탑을 세우고 저는 큰 절을 세 곳에 세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백번 절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나왔습니다.

이레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적기를 마치고 붓을 놓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피 울었는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요, 원수 같은 중놈이 이미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하

염없이 비통해하십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시는 겁니까?”

김 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대군이 몰락하여 수성궁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들의 꽃과 트락의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거늘 사람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의 과실을 따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사사로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는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三清宮)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회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합니다.”

이윽고 눈물을 뿌리며 유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A]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천지가 다해도 이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와 만나 이렇게 회포를 풀었으니 전생의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엇드려 바라건대 선생은 저희가 쓴 글을 수습하시어 영원히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망스런 사람의 입에 헛되이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김 진사가 취하여 운영에게 몸을 기대며 절구 한 편을 읊었다.

궁중에 꽃 지고 제비 나는데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간 데 없네.  
한밤의 달빛 이리도 서늘하여  
버드나무와 가벼운 안개는 푸른 우의(羽衣)\* 같네.

유영이 이어서 읊조렸다.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띠었고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우의(羽衣): 신선의 옷.

1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는 부처님에게 ‘특’의 죽음을 기원했다.
- ② ‘김 진사’는 청량사에서 ‘특’의 행적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 ③ ‘김 진사’는 ‘운영’의 재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다.
- ④ ‘김 진사’와 ‘운영’은 가끔씩 속세에 내려와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 ⑤ ‘김 진사’와 ‘운영’은 그들을 속세에 환생시키려고 한 ‘염라대왕’의 배려를 거절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운영전」은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현실이라는 외부 이야기 속에 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적강 화소(謫降話素), 남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말하게 한 발상, 삽입된 시와 서사 전개 간의 밀접한 연관, 비극적 성격 등이 잘 어우러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① 몽유자가 꿈에서 깨어난 후 발견한 책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군.
- ②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을 천상계로 설정하여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 ③ 내부 이야기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군.
- ④ 내부 이야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한을 품고 죽는 것과 외부 이야기에서 몽유자가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비극적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녀 주인공이 읊은 시는 특정 공간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 내용과 연관되어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무상감을 부각하는군.

1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오를 밝히고 있다.
- ② 보답을 암시하며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⑤ 우려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막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처럼 복잡한 생물도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체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발전하며, 수정란에서 출발하여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을 '발생'이라 한다.

정자와 난자가 융합된 수정란의 형성 과정에서 난자는 모태가 된다. 난자는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 반구는 양분 분자들이 농축된 난황이 있어 주로 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동물 반구는 세포의 소기관들이 많이 분포해 주로 대사 활동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양서류의 경우에는 식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없고, 동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많으며, 내부 세포질에는 색소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정자가 동물 반구로 진입해 융합되면, 색소들이 정자 진입지점 주변으로 모여 검은 점을 이룬다. 이 때, 동물 반구의 피질이 진입지점 방향으로 약 30°정도 회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수정란 안쪽의 세포질은 피질과 함께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자 진입 지점 반대쪽에 있는 동물 반구 경계 부위의 세포질 부위가 노출된다. 이 부분이 회색의 초승달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 '회색신월환'이라고 한다.

1920년대 독일의 생물학자 슈페만은 도롱뇽의 알을 가지고 발생을 연구하였다. 그는 수정란 하나는 회색신월환이 양쪽으로 나뉘도록 묶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한쪽에만 있도록 묶었다. 그 결과 회색신월환이 둘로 나뉘어 포함된 수정란의 경우는 발생의 단계가 각각 진행되어 두 세포 모두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회색신월환이 없이 묶인 것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실험 결과는 회색신월환에 정상적인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포질이 재배열하면서 만들어진 회색신월환에는 포배기\*의 다음 단계가 시작하도록 세포 이동을 지시하는 요소가 있다. 이 회색신월환의 요소가 세포들에 이동 신호를 보내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의 배엽층이 만들어지는 발생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배엽은 소화기와 호흡기 등이 되고, 외배엽은 신경계와 피부 등이 된다. 또 중배엽은 혈관이나 뼈 등의 신체기관이 된다. 회색신월환은 단세포인 수정란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체기관의 조직으로 분화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 포배기: 수정란이 세포분열한 후 표면에 층을 만들어 배열하고 가운데 부분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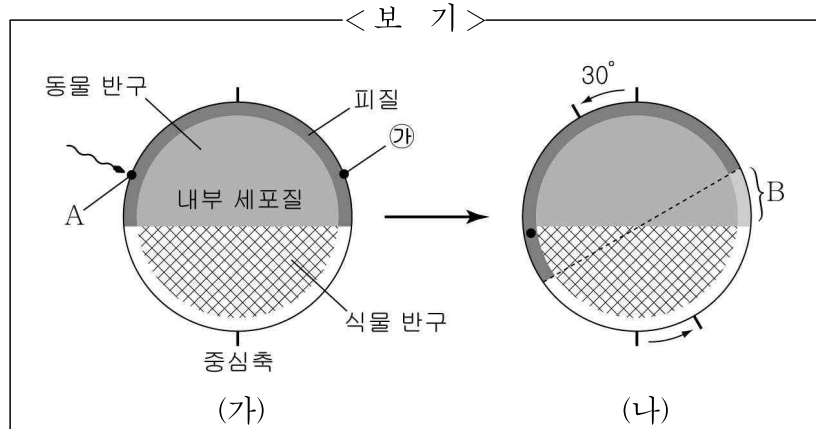
15. 윗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ㄴ. 각 배엽층의 세포는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는가?  
 ㄷ. 세포분열 과정에서 난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ㄹ. 양서류의 난자에 색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6. <보기>는 ㉠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토대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자 진입지점이 A에서 ㉠로 바뀌면, 난자 피질의 회전 방향도 ㉠쪽으로 바뀔 것이다.
- ② A는 동물 반구의 피질 부분으로 배엽층을 형성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다.
- ③ B는 (가)의 수정 단계 이후 회색신월환이 형성된 부분이다.
- ④ B는 피질이 회전하여 동물 반구의 세포질 색소가 노출된 부분이다.
- ⑤ (가)에서 (나)로 진행되는 동안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 피질의 색소 분포가 변화한다.

17. [A]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 ② 세포 소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어느 곳인가?
- ③ 발생에 필요한 세포질 요소가 수정란의 어느 부위에 분포하는가?
- ④ 정상적인 수정란에서 동물반구와 식물반구의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⑤ 수정란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세포층을 형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